

AI시대 스마트폰 경쟁력 ‘공급망’... 삼성 ‘약진’·애플 ‘흔들’

비용 절감·부품 수급 중요해져
삼성, 글로벌 파트너 협력 활발
애플, 폴더블폰 출시 지연 가능성

애플이 인공지능(AI)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과 부품 수급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조 경쟁력과 신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공급망 경쟁력이 AI 시대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과 메모리 공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판매용 제품에 CXMT 메모리를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정부가 두 회사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린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것은 글로벌 D램 공급 부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업체로부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부품업체를 상



28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을 찾은 시민들이 갤럭시 Z 시리즈 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대로 강한 가격 인하 압박을 이어오면서 메모리 업체들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렸고, AI 시대 공급 부족 국면에서는 오히려 협상력이 약화됐다고 보고 있다. 결국 과거 가격 협상 전략이 원가 부담과 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 맥스 가격이 현행 모델보다 최대 200달러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이폰17 프로 맥스의 미국 출시 가격이 1199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차기 모델은 최대 1399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국내 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30만원대다. 그동안 애플이 부품 가격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며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왔지만, 공급망 불안과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더 이상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부품 제조 역량과 대규모 구매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2%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자체 제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대응력이 AI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 우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역시 퀄컴과 엑시노스, 미디어텍 등 복수의 파트너와 협력하는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정 업체에 의존하기보다 공동 선행 개발과 기술 협력을 통해 제품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

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 사장은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기자회견회에서 “현재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요 협력사들과 긴밀히 협의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파트너사들과 모색 중이며 이번 폴드8-폴드8 울트라-플립8 신제품 역시 이러한 협력 기조 아래 준비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공급망 변수로 애플의 첫 폴드블 아이폰 출시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가을 폴드블 아이폰을 공개하더라도 실제 판매 시점은 연말 또는 내년 1분기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경우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의 4대3 화면비와 Z 폴드8 울트라, Z 플립8 등 확대된 라인업을 앞세워 프리미엄 폴더블 수요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AI 서버 투자 확대로 메모리 공급이 빠듯해지면서 스마트폰 업체들도 과거처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자체 부품 조달 역량과 공급망 대응 능력이 향후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한·미 금리차 다시 벌어지나... 연준 ‘깜짝인상’ 가능성

중동 긴장·유가 변동성 등 변수 작용
워시 의장, 금리 정책기조 이목집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 1.00%포인트(p)까지 좁힌 한·미 금리차가 2주 만에 다시 벌어질 갈림길에 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동결이 기본 시나리오지만 시장이 38%의 ‘깜짝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썬업도 복잡해졌다.

28일 연준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성명은 한국시간 30일 오전 3시, 케빈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은 오전 3시30분 시작된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연 2.75%, 미국은 연 3.50~3.75%다. 미국 금리 상단 기준 격차는 1.0%포인트(p)다. 연준이 0.



지난 5월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신임 의장이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25%p 올리면 미국 금리는 3.75~4.00%가 되고 격차는 다시 1.25%p로 확대된다. 한은이 지난 16일 인상으로 줄인 격차가 2주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지난 17~21일 실시된 로이터 조사에서 전문가 104명 전원이 7월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이후 중동 긴장과 유가 변동성

이 커지면서 주요 투자은행 사이에서는 결정을 ‘점진’으로 보는 시각이 늘었다.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0.25%p 인상 확률은 일주일 전 16%에서 이날 아시아 거래시간에 38%로 뛰었다. 9월 회의까지 한 차례 이상 올릴 확률은 81%다.

지표는 엇갈린다. 6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 근원물가는 2.6% 올라 모두 전월보다 둔화했다. 신규 고용도 5만7000명 증가에 그쳐 동결론을 뒷받침했다. 반면 5월 개인소비지출(PCI) 물가와 근원 PCI는 각각 4.1%, 3.4%로 연준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주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브렌트유는 미국의 이란 공습 일시 중단으로 이날 86달러대로 내렸다. 그러나 협상 결렬 시 공습 재개 가능성이 남아 유가 경로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최신 물가지표인 6월 PCE도 FOMC 성명 발표 약 18시간

30분 뒤에야 공개된다. FOMC가 최신 PCE 공개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7월 동결·9월 인상 검토’ 전망에 힘을 실는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 자체와 함께 표결 구도, 성명 문구, 워시 의장의 9월 인상 언급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금리차 확대와 달러 강세 압력이 맞물려 한은의 8월 연속 인상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동결 하더라도 9월 인상 신호를 강화하면 한은은 8월 27일 금통위에서 선제 대응할지, 9월 FOMC까지 기다릴지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연준이 9월 인상 가능성을 낮추고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 한은이 10월 회의까지 국내 물가와 가계 부채 흐름을 지켜볼 여지가 커진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 1면 ‘코스피 10% 폭락...’서 계속

‘AI 거품론’ 다시 고개 반도체기업 주가 급락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3.39%, 14.65% 하락한 22만원, 155만원에 마감했다. 낸드플래시 제조사 키옥시아는 18.33% 급락했다. 대만 증시 시가총액의 40% 넘게 차지하는 TSMC도 1.07% 하락했다.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증시에 압박을 주고 있다. 디인포메이션은 “이번 성과는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ASML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잠재했던 AI 거품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엔비디아가 오픈AI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2500억달러 규모의 자금 보증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사에 자금을 지원하면 해당 고객사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고, 엔비디아도 SK하이닉스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사가는 식의 순환 구조가 AI 수요와 기업가치를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금리를 ‘깜짝’인상할 수 있다는 소식도 시장에 부담 요인이다. 프랭크 플라이트 시애틀증권 매크로전략 책임자는 이번 인상이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공언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1면 ‘오픈 AI 첫 AI 기기...’서 계속

韓, AI시대 전략거점 부상

AI 업계 관계자는 “AI 기기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AI 플랫폼”이라며 “AI 활용도가 높고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수용하는 시장일수록 테스트베드 가치가 커진다”고 말했다.

업계는 한국이 테스트베드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으로 디지털 인프라와 AI 생태계, 제조 경쟁력을 꼽는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갖추고 있으며 신기술 수용 속도도 빠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정부도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AI 활용 기반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도 경쟁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등 AI 기기 핵심 부품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는 첫 AI 기기의 국내 선출시 여부보다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국을 ‘가장 먼저 기술을 검증하는 시장’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스마트폰 시대 ‘출시를 기다리는 시장’이었던 한국이 AI 시대에는 AI 서비스 소비 시장을 넘어 AI 공급망과 AI 하드웨어를 함께 검증하는 전략 거점으로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지난해 미거주 주택 172만호 ‘역대최대’

데이터터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작년 기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170만 호를 넘어섰다. 이 같은 미거주 주택 수 증가율은 7.7%로, 전체 주택 증가율인 1.6%에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거주 주택’ 수는 전년대비 12만2000호(7.7%) 늘어난 172만2000호로 집계됐다. 이는 미거주 주택이 주택종류별 통계에

포함된 1995년 이래로 가장 많다.

미거주 주택은 조사 기준일인 11월1일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가리킨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뿐 아니라 입주 전 신축주택과 매매·임대·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주택도 포함한다.

전체 주택에서 미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8.0%에서 8.5%로 0.5%포인트(p) 늘었다. 5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미거주 주택은 21만 호(13.9%) 증가했다.

주택 종류별 미거주 비중은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이 1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립주택 14.7%, 다세대주택 11.4%, 단독주택 10.3%, 아파트 7.1% 순이었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총주택 수는 2018만1000호로 전년대비 30만9000호(1.6%) 늘었다. 총주택 수가 2000만 호를 넘어선 것은 1960년 주택총조사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다.

주택 증가세는 아파트가 이끌었다. 아파트는 1328만9000호로 전년대비 31만5000호(2.4%) 늘었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5.8%로 전년대비 0.6%p 커졌다.

지역별 주택 증가율은 인천이 2.9%로 가장 높았다. 또 대전과 충북이 각각 2.3%로 그 뒤를 이었다. 늘어난 주택 수는 경기도 8만호로 가장 많았고 서울 4만6000호, 인천 3만4000호 순이었다. 전체 주택의 46.8%인 944만5000호는 수도권에 분포했다.

주택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후 20년 이상 지난 주택은 1129만호로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 30년 이상 된 주택도 618만호로 전체 주택의 30.6%에 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